

1. 금년 재해 대책

우리 나라는 매년 여름철만 되면 태풍·호우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고 있으며, 그 피해액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예년보다 다소 긴 장마를 예보하고 있고, 그중 2~3차례 집중호우와 태풍을 예상하고 있어 피해가 걱정된다.

최근 10년간('83~'92)의 재해로 인한 피해 통계를 볼 때 연평균 인명 피해가 277명, 재산 피해가 3천8백32억원으로 이중 94%가 이 기간중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에 대비, 금년 6월을 '재해예방 준비의 달'로 설정하고, 이 기간중에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 홍보 실시는 물론 그

동안 추진해온 '93 재해 사전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 피해를 올해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42만 내무공무원 모두가 합심 협력,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금년 우기에 대비해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93 풍수해 대책을 소개하면

첫째, 재해 피해 줄이기 시책 추진으로 국방부·건설부·수산청·산림청·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인명 구조 공조 체계를 확립하고, 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영산강 등 전국 5대강 유역의 재해 피해 우려 지구에 인명 구조대(336대) 및 수방 기동대를(1,657대)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보트·구명복 등 인명 구조 장비와 고립지에는 무전기 등 통신 장비를 확보하는 등 인명 피해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재해 위험 시설물 일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재해 위험 시설물 3,367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그중 1,990개소는 우기전 완전 정비 하였고, 지하철공사장·공사중 또는 중단된 골프장 45개소 등 나머지 1,377개소에 대해서는 가배수로 설치, 비닐 덮기 등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 완료 하는 한편, 개소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관리 카드 등을 작성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셋째, 방재 물자 비축 및 이재민 수용시설 확보를 위해 포대류·말목 등 응급 복구용 수방 자재 750만점, 불도저·덤프트럭 등 응급 복구용 장비 2만4천대, 그리고 비상 식량·모포·침구 등 구호물자와 예방 주사약 살충·살균제, 우물 소독약 등의 충분한 방역 물자를 5월말까지 전량 확보하였다. 이재민 수용을 위하여 학교·교회·마을회관 등 전국 9,531개소에 1백89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시설도 확보하였다.

넷째, 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관리와 복구 태세 확립을 위하여 재해 기간중(6.15~10.15)에 내무부·기상청·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24시간 상황 근무를 실시하고, 특히 기상특보 발령시는 국방부·건설부·경찰청 등 16개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비상 근무를 실시하며,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중앙과 시도, 시군구까지 ON-LINE 컴퓨터망으로 연결하는 방재 전산망

기획/풍수재 대책

풍수재해 대비는 국민 모두와 함께



한택수

(내무부 민방위본부 방재과 재해관리 계장)

도 7월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또한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을 위해 피해 우선지구에 대해서는 중앙 합동 조사반 파견, 기술 지원단 편성 운영 등의 현장 지원 태세를 강구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 방재 의식 함양을 위한 특별 홍보 시책 추진을 위해 재해 예방 준비의 달인 6월중에 극장 홍보용 영화 대한뉴스 1961호를 제작 방영, 전국의 공익 광고 전광판·유선 방송 시설을 활용한 홍보, 철도 역사 전광판 및 객실 계도 방송, 지하철 홍보판 활용 등의 범정부적 차원의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일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가 우려되는 지구의 주민에게 '재해에 고서한'발송, 재해 위험 지역 지정·점검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청취케 하는 등 국민의 자율 방재 의식 함양과 방재 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다.

2. 재해시 국민 행동 요령

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해야 할 일

1) 공통 사항

- ① 집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수 한다.
- ② 집안의 하수도는 물론 골목길 등의 하수도가 막혔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지 혹은, 무너져 내려 앉을 곳은 없는지를 확인하여 보수하여 둔다.
- ③ 간판 등 옥외 부착물이 비바람에 떨어져 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기 전에 단단히 묶어 두



거나 못 등으로 굳게 고정시키고, 수리하여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제거한다.

④ 단전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 손전등, 양초, 호롱불 등을 늘 준비해 두도록 한다.

⑤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일기 예보 청취를 생활화하면서 일상 생활과 불의의 재해에 대비한다.

⑥ 여름 휴가나 등산, 낚시 등 여행시에는 반드시 라디오를 휴대하고 일기 예보를 청취하여 기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2) 농촌지역에서 해야 할 일

- ①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매어 농작물이 쓰러짐을 방지한다.
- ② 가건물, 비닐하우스 등은 보수하거나 단단히 묶어 둔다.
- ③ 농경지는 물이 잘빠지게 배수로를 깊게 파 준다.
- 3) 어촌 및 해안지역에서 해야 할 일
- ④ 해안가의 강한 비바람에 날아

갈 위험이 있는 지붕과 시설물 등은 단단히 묶어 주거나 보수한다.

⑤ 모든 선박의 통신 장비, 항해 장비, 구명 장비 등을 점검하여 긴급사태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⑥ 수산 증·양식 시설은 정해진 규격대로 설치하고 피해가 반복되는 곳에는 양식 시설을 피하도록 한다.

나. 호우·태풍 등 경보 발령시 해야 할 일

1) 공통 사항

- ① 가정에서는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경청하고 가옥의 안전 상태를 재점검 한다.
- ②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중인 가족은 일찍 귀가한다.
- ③ 배수로를 다시 살피고 바람에 날릴 물건은 묶거나 제거한다.
- ④ 긴급 사태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한다.

⑤ 차량 운행은 가급적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부득이 운전할 때에는 평소 잘 아는 도로를 이용하여 저단 기어로 감속 운행하고, 침수 도로나 계곡을 건널 때는 물의 깊이를 확인한 후 운행하며, 엔진이 꺼지거나 차가 빠졌을 경우 일단 하차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⑥ 보행자는 하천변·방과제·철탑·고압전선·옹덩이·오래된 축대·담장 등 위험한 곳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⑦ 등산객과 낚시객은 계곡이나 개천가,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절대로 야영해서는 안되며, 빨리 하산하거나 신속히 철수하여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⑧ 전기 시설과 전기 용품은 전기 코드를 꽂았을 때 합선된 것이 확인되면 함부로 만지지 말고, 가옥이 침수 되었을 때에는 두꺼비 집을 열어 둔다.

2) 농촌 지역 주민이 해야 할 일

① 논두렁이나 밭고랑은 배수로로 깊이 파 주고 비나 발작물 등이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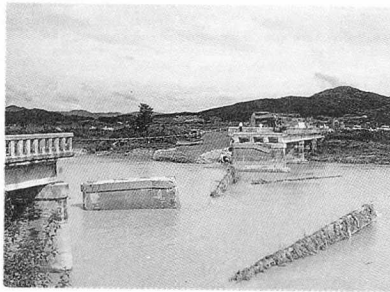
② 비가 계속 오면 물빠기 작업을 실시하고 논둑을 손질한다.

③ 비닐하우스 주위의 배수로가 정비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보호망을 설치한다.

3) 어촌 및 해안 지역에서 해야 할 일

① 해안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지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한다.

② 모든 선박은 기상통보 상황에 유의하여 출항을 금지 한다.



③ 항해중인 선박은 태풍 진로를 계속 파악하고, 가까운 항포구나 안전지대로 서둘러 대피한다.

④ 정박중인 선박은 고정시키고 고무타이어 등 충돌 방지물을 부착하여 충돌시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형 선박은 내륙 안전지대로 양륙한다.

⑤ 수산 증·양식 시설 관리는 양식장 주변에 떠다니는 물건은 제거하고 생물 유실 방지, 과도 피해 방지를 위해 이동 가능한 시설과 품종은 사전 수거하여 안전 장소로 이동 시킨다.

⑥ 피서객들은 기상 특보, 안내 방송을 들으면서 신속히 철수한다.

4) 수해 상습 지역 및 고립 지역에서 해야 할 일

①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 변화를 계속 경청하고 침수가 예상될 때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사전에 대피시킨다.

② 침수시를 대비하여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은 비닐포장을 하여 집안의 높은 곳이나 안전 지대로 옮겨 놓고 문짝, 널판지, 뗏목 등도 미리 확보해 둔다.

③ 고립시를 대비하여 마실 물, 마른 옷가지를 준비해 두며 체온 유지를 위한 비닐 등도 미리 챙겨 놓는다.

다.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

1) 공통 사항

① 긴급 사태 발생시에는 관계 기관, 민방위대장 등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행동한다.

② 집이 침수되었을 때에는 수도, 가스, 전기 등을 차단한다.

2) 침수 지역 및 등산·낚시중 고립 되었을 때 해야 할 일

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지붕 위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② 전화를 이용해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통신 수단이 없을 때는 불을 피워 연기를 내거나 흰 옷가지 등으로 자기 위치를 알린다.

③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침수 위험이 있으면 문짝 등으로 뗏목을 만들거나 튜브 등을 이용하여 탈출한다.

④ 등산·야영·낚시·피서지에서 조난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구조대가 발견하기 쉬운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불을 피워 연기를 내거나 옷가지를 매달아 위치를 알린다.

3) 대피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①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함께 지정된 대피소로 간다.

② 집안의 가재도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도로의 침수, 넘어진 나무, 늘어진 전선 등으로 고립당하지 않도록 빨리 대피한다.

③ 수해 상습 지역, 고립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을 때에는 높은 지대나 헬기장으로 피신한다. ☹